한국경호경비학회 – 제36호(2013): 227–253
투고일 2013. 07. 31, 심사일 2013. 08. 16, 게재확정일 2013. 08. 24

범죄예방을 위한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ILP)에 대한 연구
- 국내도입논의를 중심으로 -

한상암·박한호·이명우

범죄예방을 위한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ILP)에 대한 연구
- 국내도입논의를 중심으로 -

한상암* · 박한호** · 이명우***

〈요 약〉

오늘날 범죄에 대한 위협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테러, 조직화된 범죄, 범국가적 범죄가 바로 그것이다. 현대사회의 범죄는 전통적 범죄(살인, 강도, 강간, 방화)와는 다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특정화할 수 없다. 이는 치안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결과인데 현대의 범죄위협은 불특정 다수를 목표로 하는 테러위험과 같은 산발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조직적 범죄와 같은 체계적 현상이 대두되고 있고, 범국가적 범죄와 같은 광범위적 범죄현상에 대처해야 하는 치안환경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2001년에 일어난 9·11사건은 치안환경의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 사례로 볼 수 있다. 테러 이후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범죄를 다루는 관련기관에게 범죄정보의 수집과 관리, 활용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범죄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한 경찰활동의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영미국가를 중심으로 나타난 "정보 지향적 경찰활동(ILP)"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함으로써 보다 직접적으로 범죄를 관리하기 위한 업무체계(framework)를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범죄위협을 최소화하는 경찰활동을 지향하고 있다.

치안 환경변화가 세계적 공동화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와 같은 치안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을 지향해야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영미국가의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을 살펴봄으로써 도입 방안과 논의사항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어 연구가 이루어졌다.

*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공동저자)
**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강사(주저자)
*** 노스타코타대학교 박사과정(교신저자)

주제어 :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경찰패러다임,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 다기관 협력 경찰활동

목 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외국의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 체계
Ⅳ.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 도입에 대한 논의
Ⅴ. 결 론

Ⅰ. 서 론

경찰은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을 시도해 왔다. 1960년대 이전 경찰은 제공자 위주의 독자적이고 일방적인 서비스를 제공했었다. 이때, 경찰의 역할을 "범죄의 투사"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발생범죄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곧 목표 달성이라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범죄 신고에 대한 신속한 처리만을 강조해 왔다(한상암·김명대·박한호, 2012: 351; Rerez, 2001: 159-175). 그 결과 신고에만 의존하는 수동적 경찰활동을 야기 시켰고 이러한 영향은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감소시킴에 따라 범죄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역주민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초래했다.

1931년 워커샵위원회 개최와 1960년 경찰개혁 이후, 경찰은 시민의 인정이 곧 경찰 임무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경찰관리자들로 하여금 급증하는 범죄를 효율적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시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었다(이황우, 2007: 34).

이에 따라 1970년대 부터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수단으로 경찰활동의 철학적 변화를 시도하게 된다. 이러한 시도가 지역사회 내 주민과의 접점을 높이는 문제 중심적 경찰활동 전략(Problem Oriented Policing)과 지역사회 경찰활동 전략(Community Policing)이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협동과 예방을 보여주었고, 문제 중심적 경찰활동은 장기간

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분석과 창조성을 보여주는 전략으로 활용되었다(Cordner & Biebel, 2005: 155-180).

이처럼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전개는 경찰조직의 단독적 치안서비스 제공 패러다임을 상호적 창출을 통한 쌍방향적 치안서비스로 전환 되었고, 지역주민들의 치안서비스 만족 또한 고려되었기 때문에 경찰을 범죄와의 투사라는 인식을 넘어 지역구성원의 한 일원으로써 인식시키게 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그러나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전략적 패러다임은 범죄양상이 국제화됨에 따라 초국가적 범죄에 대하여 첫째, 경찰이 직접 탐색할 수 없는 위협을 관리할 수 없다는 점(테러 등), 둘째, 지역사회(관할지역)를 넘어서(지리적, 권한적)는 광범위적 범죄에 대하여 국지적 경찰활동에 속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만으로는 정보탐색에 한계가 있다는 점, 셋째, 단일기관으로써 다기관협조가 필요한 범국가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의 위협에 대처할 수 없다 점과 같은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현대사회의 범죄는 교통통신의 발달(인터넷을 이용한 범죄정보 공유)에 따른 초국가적 범죄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국제(테러)치안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단독적 경찰활동으로 대처하기 힘들어졌으며(권한), 범국가적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로부터 얻어지는 범죄정보보다 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범죄정보의 활용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무동기성 범죄자나 재범자에 대한 정보의 효율적 접근이 보다 인권적 측면에서 경찰의 접근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기관연계를 통한 정보의 활용이 부각되고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관의 확산으로 인권신장에 따른 경찰활동의 제한 등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활용한 범죄 예방과 진압에 한계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이는 경찰활동을 둘러싼 주변 환경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남에 따라 경찰전략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환주기가 짧아졌고, 그 변화의 폭 또한 크고, 세계 범죄 공동화 현상이 일어남에 따라, 결과적으로 오늘날 혼합적이고 상호적이며 보완적이고, 전문적인 새로운 경찰정보활동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한상암·박한호, 2011: 76-77; 한상암 · 김명대 · 박한호, 2012: 351). 이처럼 범죄통제에 있어서도 범죄정보관리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범죄정보의 연계적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이상훈, 2009: 352; 이정덕, 임유석, 2011: 171).

이러한 범죄정보의 상호적 연계와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2000년 이후 영국과 미국 등 외국의 몇몇 선진국에서는 정보중심 경찰활동을 지향해 왔다(Drown, 2007: 336).

영국의 경우, 국내 범죄는 물론 범국가적 범죄정보의 관리를 위해 2000년 국가정보모델(National Intelligence Model)을 구축하였고, 미국은 2003년에 국가범죄정보에 대한 계획(National Criminal Intelligence Sharing Plan)을 승인하였으며, 유럽에서는 2004년 유럽연합의 헤이그프로그램(5개년 계획: Hague Programme)을 수립하여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을 수행해왔다(Drown, 2007: 336).

이에 따라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더불어 각국의 형사적인 측면에서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이 발전되었다. 이후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서도 범죄정보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운용을 실시함에 따라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ILP)은 새로운 철학을 반영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한 패러다임적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Drown, 2007: 336-337).

이러한 경찰활동의 패러다임 변화는 앞서 설명한 특성 즉, 단독적 경찰활동으로 산발적이고 광범위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적으로 진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결과다. 이는 더 많은 정보와 다양한 기관의 협조가 선행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가공된 범죄정보운영이 초국가적 현대적 범죄현상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보다 전문적 기관에 의한 범죄정보의 창출을 통해 경찰의 범죄정보의 효율적 가공과 운영에 대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범국가적 범죄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범죄문제를 다루는 기관 간 정보의 공유시스템이 각자 다르고 권한과 정보의 공개정도가 상이함에 따라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을 수행하는데 부적합한 기관연계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는 실정에서 범국가적 범죄와 재범자의 범죄와 같은 범죄위협의 관리를 하는 데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인권의 신장에 따라 정보수집과 공유가 인권과 이중처벌이라는 논란이 있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하는 선행 과제도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이 절실한 점은 미국과 동맹관계인 한국을 목표로 하는 테러가능성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아프간과 이라크 등 이슬람지역 내 한국군 파병으로 인해 테러목표 대상에 한국도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점, 김정일 체제가 끝나고 김정은 체제로 전환한 북한과의 관계 변화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범국가적 테러위협이 증가하였고, 최근 월드컵개최, G20 정상회담, 한류컨텐츠 등의 급부상으로 한국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지역사회 내 밀수범죄, 마약범죄와 같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범죄가 지능적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

이며, 현대사회의 가속화로 경찰과 지역주민들과의 접점이 급속도로 와해되고 있는 실정에서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의존한 단편적 범죄정보의 활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진국의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 도입 시보다 효율적인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논의를 통하여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을 이해시키고 다양한 논의를 통하여 최적의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 모델을 모색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경찰활동의 패러다임내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의 통합

전통적 범죄통제 경찰활동은 경찰의 단독적 치안서비스를 기점으로 전개되어 왔다. 1960년대 이전 시민의 협조나 참여 없이 신고전화에 신속히 응답하는 것을 중심으로 치안활동이 전개되었다는 점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시민과의 접점을 감소시켰고 결국 범죄문제의 해결에 비전통적 경찰활동 전략을 시도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었다(Archbold, 2012: 46-47).

전통적 경찰활동의 이러한 실패와 한계는 여러 실험의 결과에서도 입증되었는데 1970년 정선순찰, 신고전화에 대한 대응, 범죄수사간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범죄는 범죄현장에 수집된 증거에 의해 범죄가 해결되는 것보다 범죄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충분한 범죄정보를 얻는 것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Archbold, 2012: 46-47).

캔사스 시티에서 실시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보다 신고자에 의한 정보의 정도가 체포에 상당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것을 밝혀냈고, 1973년에 실시된 캔사스 시티 예방순찰연구에서도 경찰관들이 신고전화에 대응하는 것 외에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보다 많이 제공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전통적 경찰활동이 범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반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조직은 비전통적 경찰활동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었고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시도 중 하나가 1960년대 수행되었던 팀폴리싱(Team policing)이다. 이 전략은 최초의 비전통적 경찰활동으로 볼 수 있다. 팀폴리싱을 수행했던 많은 경찰관서들이 존재했고 각기 다르게 정의되고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명확한 정의가 힘들겠지만 팀폴리싱은 크게 3가지 요소를 기점으로 수행되었다. 그 첫 번째 요소는 지역사회와 관련한 경찰업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관계를 강화시켜 지역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범죄문제를 식별하도록 하는 것이며, 두 번째 요소는 지역 사회 내 배치된 경찰관들의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상호협력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팀폴리싱 경찰관과 시민들 사이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으로 이루어 졌다. 이는 조직 내·외부의 의사소통 촉진을 통한 정보의 공유의 효율화를 창출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팀폴리싱은 이러한 전략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업무의 관여성 인식의 어려움, 중간관리계층의 지원 부족 등으로 실패하였다.

이후, 1979년 휴먼 골드스타인(Herman Goldstein)은 신고전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경찰활동의 대안으로 문제 중심적 경찰활동(POP: Problem-Oriented Policing)을 소개하고 도입하기에 이른다. 문제 중심적 경찰활동은 중요한 문제 또는 행위원인, 신고전화의 공통적인 장소, 피해자, 가해자를 식별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신고전화의 패턴을 찾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이는 다양한 정보 형태의 공통적 패턴을 탐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정보 분석적 경찰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이러한 전략적 탐색에 대한 경찰의 대응으로 경찰은 범죄사건과 무질서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론적인 문제-해결절차(methodical problem-solving processes)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SARA Model이다. 이는 경찰과 시민에 의해 반복적이고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식별하고(Scanning), 식별된 문제의 공통된 요소를 분석하여(Analysis), 어떠한 결정과 대응이 적합할지 선정하여 대응하고(Response),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식별된 문제에 효과가 있는지 평가(Assesment)하는 방법론적 전략이었다.

당시 범죄와 무질서의 식별을 위한 또 다른 전략적 기법은 범죄분석의 트라이앵글(Crime Analysis Triangle)이었다. 이는 일상활동이론을 토대로 한 경찰활동의 전략적으로써 가해자, 피해자, 기회와 관련된 특정조건들을 식별함으로써 범죄가 어떻게, 그리고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이러한 3가지 조건에 의해 특정장소와 시간에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통제 및 관리방법의 전략적 틀을 제공하였다.

POP는 전반적으로 성공한 전략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POP는 첫 번째, 일정한 범죄정보의 축적이 선행되어야 하며 연속성을 갖춰야 했다는 점, 두 번째, 문제점들

을 식별하고 분석하기 위한 전문적 기술자가 부족하다는 점, 세 번째는 경찰이 수집한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범죄정보의 분석 시 학계의 도움을 받기가 곤란했다는 점과 더불어 마지막으로 다양한 규모의 경찰관서들에서 POP를 시행하거나 유지시키기 위한 자원과 예산이 부족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후 경찰은 보다 전략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고민하게 되는데 이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한 정보의 탐색과 관련했다. 1970년대 말에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미국 내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또한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몇몇 경찰기관들은 보고된 지역 내 범죄률을 감소시킴으로써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려는 노력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도보순찰과 같은 가시성의 확보를 통해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려는 노력 또한 시도하였다. 1979년 실시된 뉴져지, 뉴왁시의 도보순찰실험의 평가를 통해 도보순찰이 범죄율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진 않지만 범죄두려움에 있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러한 발견들은 이후 1982년 James Q. Wilson과 George Kelling에 의해 제기된 깨어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에 영향을 미쳤다. 깨어진 유리창 이론은 지역사회내의 눈에 보이는 부패(decay)나 무질서(disorder)는 범죄와 사회 무질서와 연관된 다른 문제들로 발전된다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Wesley Skogan은 사회적 무질서(social/human disorder)와 물리적 무질서(physical disorder)가 정보의 수집과 협력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무질서 또는 부패의 징후를 발견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면, 그들은 집안에 숨게 되고, 지역주민들 간에 상호교류가 감소하고, 경찰과의 상호교류 또한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로 시민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경찰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지켜보는 눈의 손실(the loss of the watchful eyes of citizens')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정보의 손실을 야기 할 수 있다.

앞서 서술한 경찰활동 패러다임의 실행을 위한 경찰활동의 전략은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기 위한 시도와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정 경찰활동의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들은 거의 정보 활용을 위한 접근수단을 선택하거나 집중화시킴으로써 사용 가능한 자원을 변화시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은 지역사회 경찰활동 패러다임의 부분적 전략이자 확장된 지역사회 경찰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으로 범죄

정보수집에 한계가 있는 정보를 획득하거나 생성하기위한 업무적 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2.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의의와 필요성

영국과 호주에서 1990년대 이후로,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Intelligence-led Policing/Intelligence-driven policing)”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이 무엇이고,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며, 또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은 영국의 HMIC(Her Majesty's Inspectorate of Constabulary)의 최근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을 지향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Jerry Ratcliffe, 2008: 87-89).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Intelligence-Led Policing)은 사실상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의 확장이 지역사회 경찰활동인 것처럼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은 보다 광범위한 위협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경찰활동의 확장이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Intelligence-Led Policing)이란 용어는 하나의 표준화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만 보더라도 미국 전역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활용되고 있다.

Jerry Ratcliffe(2003)는 도입초기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을 설명하기 위해 광범위한 정의의 접근을 시도하였는데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은 증거에 기초한 효과적인 경찰활동전략과 외부의 협력을 통한 범죄의 감소와 예방을 촉진시키기 위한 객관적인 의사결정 도구로써 범죄정보 분석의 적용”이라고 정의하였다 Jerry Ratcliffe, 2003).

이후 Jerry Ratcliffe(2008)는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였는데 “범죄정보와 자료 분석상 비즈니스(업무)모델과 관리적 철학으로 특정한 문제나 심각한 범죄자에 초점을 맞춘 각각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 전략을 통한 사회문제 및 범죄 예방에 대한 명확한 결정을 만들게 해주는 업무적 틀(framework)이라고 정의”하였다(Jerry Ratcliffe, 2008: 89).

즉, ILP는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Archbold, 2012: 46-47).

이러한 맥락에서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은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직간접적 정보로 잠재적 위협 뿐 아니라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가공, 공유함으로써 범죄관리와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찰의 전략을 결정하는 활동이라 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수집된 정보가 모두 범죄특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Willmer가 주장한 것과 같이 범죄인을 알기위해서는 정보들이 그들의 행동과 유죄성을 알려줄 수 있다. 즉, 범죄행위와 관련한 모든 정보들은 서로 각기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호관계성을 가진다는 것이다(Willmer, 1970: 53). 즉, 단편적 정보는 아무래도 범죄를 예방 또는 진압 혹은 유죄를 입증하는데 약하지만 상호관계를 통한 정보의 가공은 일정한 가치를 증가시킨다. 이 점에서 정보의 상호 관계적 가치를 부여하는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은 단편적 정보의 수집에 따른 상호관계 규명과 가치를 부여하는 활동인 것이다.

이는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이 경영적 관점에서 "정보를 부가가치상품 즉,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하고,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구매를 결정하도록 만드는 과정"과 유사하게 전개된다는 점에서 정보에 가치를 더하는 활동으로 이해됨이 바람직하다(Ratcliffe, 2003: 1-6; Brown, 2007: 339).

경찰활동의 패러다임상 범죄정보의 개념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중요성은 이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급격히 중요해졌다(Drown, 2007: 336).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경찰활동의 패러다임은 범죄를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진압하기 위해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전략으로 변화하였다. 지역주민의 접점을 높여 지역 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가능케 한 것은 사실상 지역주민의 지역 내 범죄정보에 대한 협조와 공유덕분이었다.

그러나 현대사회가 복잡다단해지면서 범죄가 진화함에 따라 한정된 지역 내 주민에게 얻어지는 범죄정보는 국지적이고 단편적인 정보일 가능성이 많아 졌으며, 지역사회 외 전문적 기관의 정보와 융합되지 않으면 다양한 변수에 의해 범죄해결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불확실적 정보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특정화되지 못한 정보는 정보가공에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해야한다. 설령 이러한 투자가 이루진다고 하더라도 가공된 정보가 범죄문제해결에 직접적으로 활용될지 알 수 없다. 특히,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인지할 수 없는 테러, 마약, 조직

범죄 등 세계화에 따른 범국가적 범죄는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같은 국지적 정보의 활용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범죄들이다.

이 때문에 오늘날의 범죄정보는 전문적인 기술(framework)에 의해 특정한 범죄정보가 수집되어야 하고 다양한 기관의 연계를 통해 단편적 정보가 범죄문제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융합되고 가공되어 활용되어야 한다.

이처럼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은 경찰기관들이 범죄문제를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탐색된 범죄문제의 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략의 결정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Heaton, 2000: 337-356).

다시 말해서,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은 다양한 기관들에 의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적 업무 틀(framework)을 제공함으로써 범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진 전문적 정보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은 보다 확장되어야 하고 활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확장과 활용을 위해 이하에서는 외국의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체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 수행 시 고려되어야하는 사항을 논의한다.

Ⅲ. 외국의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의 체계

1. 영국(British National Intelligence Model: NIM)

영국은 조직화된 범죄, 마약, 다른 복잡한 범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미국보다 먼저 범죄정보를 활용해왔다. 따라서, 영국의 정보 지향적 경찰활동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우, 정부차원의 business-plan 철학(정부 서비스를 민영화 하고, business model를 정부서비스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경찰을 포함한 영국정부의 거의 모든 기관에 도입 및 실행되었다. 그 결과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의 핵심인 다기관 공공협정에 따른 상호적 범죄정보의 공유체제를 발전시켰다.

NIM은 business process model(정보를 사실상 거의 모든 policing business plan에 도입하는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ILP)의 철학을 반영하고 범죄를 통제하기 위한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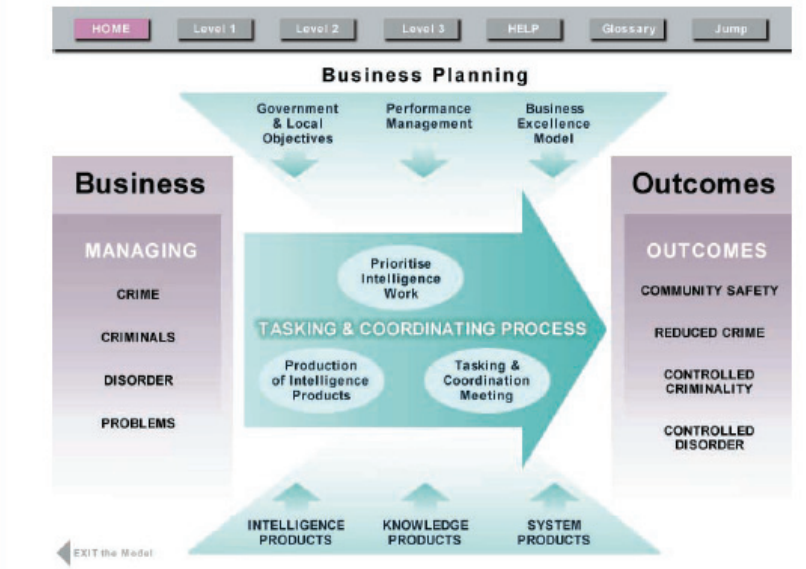
델)를 사용하는 정부의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영국의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이 실행되게 되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1980년대 NDIU(1980), 1992년도에는 NCIS(1992)로 변형되어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 계획을 실행하였고, 2000년도에는 the British NIM(2000, 2002 by ACPO)을 기점으로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 체제를 완성시켜 SOCA(2006)로 구축되었고 오늘날 NCA(National Crime Agency)로 변경절차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개념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NIM의 개념이 정착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 때문에 영국에서 자원의 재배치와 각 경찰기관에 중요한 분석부서(analytic component)들이 설치되길 바랐다(Ratcliffe & Guidetti, 2008).

NIM은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을 이끌기 위한 범죄정보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NIM은 정보제공을 위해 기관 간 정보모델을 구축하고 범죄 분석가, 정보분석가, 정보수집 인력들로 배치시키고 있으며 법집행활동의 결합을 유도하는 수행함으로써 운용되고 있다. NIM은 범죄통제에 대한 정보 뿐 아니라 사회문제에 전반적 그림을 제공함으로써 운용된다(NCIS, NIM, 2000: 7). NIM은 크게 첫 번째로 지역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하고 타 기관과 연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직되었으며, 두 번째로 이를 실행하기 위한 관리 그리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세 번째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NIM은 지역사회의 범죄와 무질서를 관리하기 위해 첫째, 정보활동의 임무와 협동과정의 구축, 둘째, 핵심적 정보의 생산과 운영체제 개발, 셋째, 모든 경찰활동에서 최고의 실무운용을 위한 규칙제정, 넷째, 정보처리시스템과 프로토콜 개발을 목적을 두고 이행하고 있다(Gonzales et al., 2006: 10). 이와 관련하여 NIM의 운영체제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수준으로 구분되고 지원된다. “레벨 1”은 지역 문제로 일반적인 범죄, 범죄자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문제들이다. 단독적으로 정보를 탐색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이에 해당한다. “레벨 2”는 국경 간 문제로 일반적으로 범죄 또는 기타 특정의 행동과 같은 문제들로 하나이상의 기관이 참여해야하는 범죄정보들이다. “레벨 3”는 중대하거나 조직적으로 편성된 범죄(조직범죄)로 국제적 규모의 범죄로 다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며, 다양한 범죄정보가 필요한 수준의 정보로 취급되어진다. 이해를 돕기위해 아래는 NIM의 시스템을 나타낸 것이다. 이하의 설명과 관련하여 변경된 NCA의 시스템 또한 NIM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에 NIM을 위주로 설명하였다.



〈그림 1〉 NATIONAL INTELLIGENCE MODEL SYSTEM

NIM의 체계는 그림과 같이 3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는 4개의 요소들(Crime, Criminals, Disorder, Problems)에 접근할 전략과 협력연계 과정(조율과정)이며, 두 번째는 4개 요소들(Crime, Criminals, Disorder, Problems)의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앞서 생산한 정보와 지식을 결합함으로써 가치 있는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관련체계를 형성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전략과 협력과정들은 "전략과 업무협조 집단들 간의 조율회의(Tasking and co-ordination group meetings)"를 통해 실무자의 지휘아래 해당문제의 권한을 가진 기구와 계획에 필요한 사람들을 구성 및 배치하고 법집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화 한다.

또한 "지능정보생산과 제공(Production of the intelligence products)"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요구되는 정보의 전략적 정보 평가, 전술 평가, 대상 프로파일 및 문제 프로파일을 생성하고, "정보 업무의 우선순위 결정(Prioritisation of intelligence work)"을 구성함으로써 연계된 기구들은 직접적으로 정보의 기능을 유지하며 완전한 정보의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과 전술을 적용하여 지역사회의 안전화, 범죄감소, 범죄성 통제, 무질서를 통제하게 된다. 이를 위해 수집되고 저장된 정보를 활용하

게 되고 이는 상호협력관계에 의해 기간 및 기구 간 연계됨으로써 검색되고 분석됨으로써 활용된다.

이하는 **NIM의 직접적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을 위해** 수집되고 저장된 정보로 접근 가능한 목록들을 제시한 것이다.

〈표-1〉 NIM의 직접적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목록

- Police National Computer - NAFIS - Interpol, Europol and, in the future, Sirene - the NCIS (Alert) database - specific law enforcement agency systems, perhaps subject to controlled access, such as the CEDRIC system of HM Customs and Excise - the developing Police National Information Pil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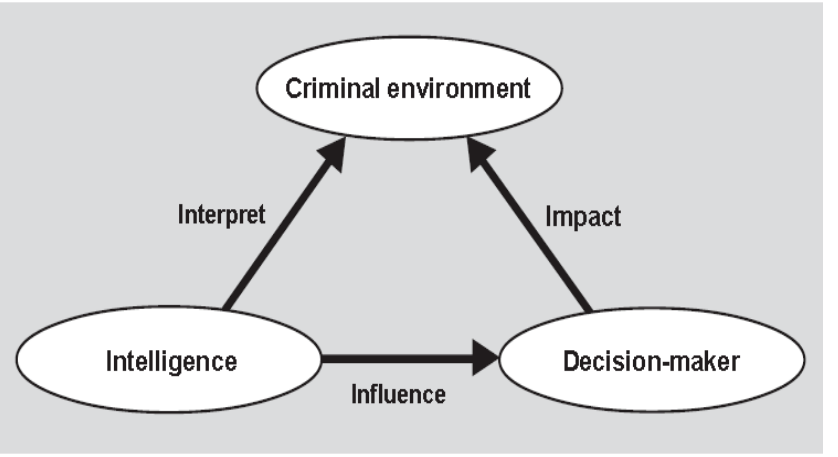
출처: National Criminal Intelligence Service, NATIONAL INTELLIGENCE MODEL, 2000, pp.26

영국은 이러한 통합적 범죄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예산의 절감효과까지 가져왔다. 또한 정보의 공유와 생성활용에는 근거법률을 두고 있고 엄격한 감독과 관리를 시행하고 있어 인권 침해적 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2. 미국(ILP: intelligence-led policing)

영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도 갑자기 창안된 활동은 아니지만 2001년 9월 11일 뉴욕시 World Trade Center의 공격은 미국 내 National Security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중요성을 부각시켰고, 테러이후 경찰기관들은 경찰업무에 보다 효과적으로 범죄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관심과 고민의 결과가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ILP: intelligence-led policing)이다.

그림 1에서 보는바와 같이 미국의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은 크게 정보, 범죄환경, 전략의 결정단계로 이루지고 있다. 범죄와 관련된 정보들은 Three-I model에 의해서 가공되어지고 가치를 가지게 되며, 이러한 정보들은 범죄환경에 영향을 줌은 물론 최적의 경찰전략을 결정하게 만든다.



〈그림 2〉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과 범죄감소과정(Ratcliffe, H. J. 2003: 3)

미국의 ILP는 전략적 수단으로써 특정한 정보의 수집체계로 얻어진 정보를 전제로 경찰활동을 수행한다. 그 체제가 바로 앞서 언급한 Three-I model (interpret, impact, influence)이다.

Three-I model은 3가지 구성요소에 의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가공하고(가치를 부여), 직접적으로 범죄해결에 영향을 준다.

이 모델은 3가지 구성요소에 의하여 정보의 가치가 결정되는 메커니즘을 포함한다. 첫째, 범죄 분석가(crime analysts)들은 중요하거나 발생할 위협을 찾기 위해서 범죄환경을 해석(interpret)함으로써 가치가 결정되며, 둘째, 범죄 분석가들에 의해 조직 내에서 주요한 결정을 내리는 관리자에게 영향(influence)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영향을 주고, 셋째, 주 결정권자(key decision maker)는 범죄환경에 영향(impact)을 주는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범죄문제의 해결에 영향을 주는 메커니즘의 역할을 한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범죄예방과 감소에 직접적 결과를 발생시킨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업무적 틀(framework)과 다양한 기관들(법집행 및 정부)과의 정보공유가 ILP의 핵심이기 때문에 미국은 최근 다양한 수준(from patrol up to the chief)의 경찰관들과 다양한 형태(from local to federal level agencies)의 경찰관서에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적 업무지원센터(fusion centers)를 만들었다.

현재 최소 25개의 주에 설치되어 위협적인 정보(반테러 정보) 뿐만 아니라 신원도

용, 돈세탁, 무기휴대강도, 보험사기 등 다양한 종류의 범죄정보를 포함하여 각 법집행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적 틀과 기관연계를 통한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은 범죄대응 전략의 결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범죄환경과, 전략결정, 정보지향성이 상호관계를 가지면서 결국 범죄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3. 시사점

아마도 ILP(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을 시행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개념(conceptual)적인 부분일 것이다. 여기에 제시된 ILP모델은 ILP를 지역사회 경찰활동, 문제해결, 그리고 파트너쉽 위에 만들어진 대단히 중요한 업무틀(framework)로 여기며 모든 범죄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는 광범위한 개념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제까지 미국은 물론 국내문헌에서도 ILP의 개념과 구분에 대하여 매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ILP의 선택적 개념(alternative conceptualizations)은 ILP를 국가안전과 테러에만 오로지 집중하거나, 높은 비율의 만성적인 범죄자를 타겟으로 삼고 식별하는 영국의 ILP모델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에서 ILP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정보 지향적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문제 해결적 경찰활동, 그리고 파트너쉽의 개념통합에 관한 움직임 뿐만 아니라 경찰활동 스타일의 본질적인 갈등에 대해서도 주목해 왔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분권화(decentralized)되고 지질학에 기초한 구조(geographic-based structure)를 요구하였지만, ILP는 집권화(centralized)된 정보기능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Hale et al., 2004: 297).

외국의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은 정보 수집관리와 운영단계에 대한 직접적이고 고차원적인 업무의 틀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틀을 사용하기위한 법률적 정비는 물론 필요한 전문 인력 또한 양성하고 배치하였다는 측면에서 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산발적 정보 분석 기관의 연계와 정보수집 및 분석과정(framework)이 상대적으로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경찰들이 단독적로 활동함으로써 범죄에 영향을 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들어 났지만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을 통한 기관 연계적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범죄감소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다기관 연계 체제를 통한 범죄정보 탐색과 수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Heaton, 2000: 337-56).

Ⅳ.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 도입에 대한 논의

1.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도입을 위한 인권보호체계 확립

정보는 인권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은 사용가능한 범죄정보의 수집에 따른 활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범죄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관하는 절차, 가공된 정보의 활용, 기관과 기관 간 범죄정보의 공유범위와 공개범위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경우 매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범죄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2000년도부터 성범죄자를 비롯한 고위험 범죄자의 범죄정보와 관련된 정보를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미국의 경우도 2001년 9·11테러이후 이와 유사한 법률들을 제정하여 범죄정보에 대한 인권침해의 이해를 구하고 법률적 한계 내에서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복귀한 범죄자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이중처벌의 논란을 발생시키기엔 충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잠재적 범죄를 관리하기 위한 사전적 활동에 대해 인권침해에 대한 위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범죄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사회 안전에 대한 욕구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 사회적 유대와 제도적 마련이다. 우선, 정보주도형 경찰활동의 개념적 적용과 경찰조직은 물론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도 명확히 이해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범죄정보 활용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조직은 물론 지역주민, 경찰 전략결정자를 포함해 사회문제와 관련한 지원기간의 관계자들까지 정보주도형 경찰활동의 도입 배경과 목적, 기능, 활용과 같은 것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법률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보의 공개범위에 대한 사전적 검토와 논의를 통해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에 맞는 법률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가공정보에 대한 사생활보호 감독과 관련한 규정 등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인권 침해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보시스템 구축과 기관 간 연계를 위한 규정제정

형사사법기관의 범죄정보공유(Criminal Intelligence Sharing)를 위한 협력이 증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범죄문제를 다루는 기관들도 인식하고 있지만,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며,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기관 간 이견이 있어왔다(McGarrell et al., 2007: 142-158; 이정덕·임유석, 2009: 171).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의 핵심은 기관 간 협조체계 통해 범죄정보의 수집과 가공, 활용을 통해 범죄를 사전에 탐지·예방하고 관리함으로써 재범에 대한 위험 요소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기관 간 협력체계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기관인 경찰, 교정, 법원조차도 각 기관의 기관 이기주의에 의하여 정보를 일부만 공개하거나 공유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속적 연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Carter & Carter, 2009: 7-8).

각 기관들의 기관 이기주의를 넘어 특정한 범죄위협으로부터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률로써 기관 간의 협조체계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 검찰, 법무부, 경찰 등의 형사사건 관련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하자는 취지에서 2004년 12월 700억원을 들여 "형사사법통합 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를 위한 근거법률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정보 지향적 경찰활동의 메커니즘상 단편적 정보제공에 그치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은 단편적 정보를 취합·가공함으로써 가치를 형성하는 정보로 변환·활용됨에 따라 기존의 체제에서 나아가 더 발전적인 형태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무규정에는 정보공유에 대한 책임 기관의 역할, 기관 간 공유의 범위 설정, 업무협조규정, 구성기간을 감독할 수 있는 감독권, 구성기관의 준수사항 등이 사전에 법률로써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정보가공과 활용에 대한 의견조율

정보는 활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같은 정보라 하더라도 범죄학

적 분석의 틀을 사용하는가와 경제학적 분석의 툴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다른 결과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또한 활용할 정보의 양은 직접적으로 결과산출에 영향을 준다.

정보 지향적 경찰활동은 다양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생산하지만, 접근에 있어 다기관의 정보 또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기관 간 정보공개 범위와 협조범위, 가공정보의 활용범위 등의 조율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율을 위해 중간적 관리자가 필요하다. 이는 정보를 수집한 기관과 정보를 가공한 기관 사이에 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범죄 문제 외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보에 대한 감독과 가공된 정보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관리 통제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즉, 간사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미국의 범죄정보공유센터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단편적 정보의 공개에 그치지 말고 정보공유에 대한 시스템화에 집중시킴과 동시에 업무 분배적 체계를 형성하고 그 중심적 기관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간사적 공유센터는 세분화된 기관의 전문성을 각기 특성을 유지시키면서 연계시켜 시너지 효과를 이끌기 위한 업무협조 체계의 제공할 수 있다.

4.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을 위한 전문가 양성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은 다기관 협력 체제를 통한 정보의 수집과 가공, 활용이다. 이러한 일련의 진행과정은 경찰 활동적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분석이 수반되어야만 각 기관 간 수집된 단편적 정보의 취합과 직접적 활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찰 활동적 분석은 연결고리가 없을 것 같은 범죄정보를 상호간 연결시킬 수 있는 전문가의 분석과 기술이 투영됨으로써 정보의 가치를 형성할 수 있다.

Bichard가 주장한 바와 같이 범죄정보는 누가 질문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의미와 확장을 수반한다. 정보는 정보의 수집이나 특정한 기능은 직접적 활용가능성을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Bichard, M., 2004: 8-15).

미국과 영국의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을 수행하는데 가장 핵심적 인적 구성원은 범죄분석가로 기관과 기관 간 정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협력을 유도하고, 범죄문제와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 정보를 요청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적 인력은 단기간의 교육으로 양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기관에

의해 훈련받도록 하여 그 전문성을 함양해야 한다.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의 핵심은 분석과정의 직접적 범죄영향을 주는 것이다. 즉, 가공되지 않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며, 수집된 정보의 분석과 가공을 통해 범죄위협요인을 식별하고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범죄학적 측면에서 분석되고 경찰 전략적 운용 측면에서 전략을 개발 운용할 수 있는 분석가가 되어야한다. 이는 채용분야에서 각기 다른 전공들과 현장경험을 가진 경찰관의 채용으로 해결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목표 중심적 전략으로써 정보 지향적 경찰활동을 정착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는 지역과 기관의 특성과 재원이 균형잡힌 편성을 함으로써 이루어 질수 있다.

Ⅴ. 결 론

정보를 활용한 범죄예방은 갑자기 창안된 새로운 전략은 아니다. 사회문제와 관련한 기관에서 각자 나름대로 범죄정보를 활용하여 범죄를 진압하거나 예방해 왔다. 특히, 경찰은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해 경찰조직의 직접적 범죄정보 수집전략을 넘어 지역사회 경찰활동 전략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제점 및 범죄예방을 지역주민과 같이 범죄정보를 수집해왔다.

그러나 현대사회가 복잡다단해지면서 경찰의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통한 정보수집에 한계가 있는 테러, 조직적 범죄, 범국가적 범죄들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통한 정보수집에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한계를 극복하고자하는 전략으로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을 통해 다기관 연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을 지향하고 있는 미국은 9·11테러이후 국토안보와 관련한 종합적 정보체계를 형성하였고, 영국의 경우 미국보다 앞서 적극적으로 국가정보모델을 활용함으로써 범죄 및 재범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여 범죄예방 및 사전적 위협에 대하여 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동맹관계 국임과 동시에 이슬람권 파병과 같은 국제관계에 따른 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북한과 지속적 관계 악화상황 속에서 테러와 같은 국제치안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국제화에 따라 이전과는 다른 조직적

이고, 범세계적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영미국가의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과 같은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 체계에 따른 범죄위협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과 같이 9·11사건이후 체계를 갖추기 전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을 활용한다면 범죄위협을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과 영국의 국가정보모델 체제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검토하였고, 양국가의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의 체계를 설명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을 지향 시 논의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영미국가의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의 주요 원리를 정리해 보면 경찰의 단독적 범죄정보의 수집과 활용만으로는 앞서 기술한 테러, 조직화된 범죄, 범국가적 범죄에 대하여 효율적인 예방과 적극적인 진압을 유도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 주도형 업무체계를 구성하고, 범죄정보를 기관 간 범죄위협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단편적 범죄정보를 범죄해결에 직접적으로 활용가능 하도록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경찰활동을 지향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경찰활동과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의 변천과정을 통해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의 전략과 철학을 이해하고, 외국의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의 시스템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 도입 시 국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논의되어야 할 사항들을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정보의 수집과 관련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법령의 사전적 제정과 경찰활동의 이해를 도모하고, 기관 간 정보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술하였고, 이와 더불어 정보 지향적 경찰활동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기관 간 간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의 설치와 범죄적 접근을 유도할 수 있는 범죄 정보 분석가 양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다.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이 영미국가에서도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논의를 통해 현실에 잘 맞는 전략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김두현·안광호. (2010), "다중이용시설의 대테러 안전대책",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22호: 37-64.

윤민우·김은영. (2012), "다차원 안보위협과 융합안보",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31호: 157-183.

이정덕·임유석. (2011), "테러리즘에 대비한 정보주도형 경찰활동(ILP) 전략", 「한국테러학회보」, 제4권 제1호: 171.

이황우. (2008), 「경찰행정학」, 제5판: 34.

한상암·박한호. (2011), 「경찰 정체성확립방안, 경찰청 미래발전과」, 경찰청: 76-77.

한상암·김명대·박한호. (2012), "경찰공무원 치안서비스제공의 일관된 행태 저해 요인에 대한 논의",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47호: 351.

2. 국외문헌

National Criminal Intelligence Service. (2000). NATIONAL INTELLIGENCE MODEL, p.7

Archbold, C. A.. (2012). Policing, sage. pp.46-47

Bichard, M. (2004). Bichard Enquiry Report: introduction and summary. Retrieved January 11, 2006, from http://www.bichardenquiry.org.uk, pp.8-15

Perez, W. D. (2001). Paradoxes of Police Work, Second Edition, DELMAR CENGAGE Learning. pp.159-175

Carter, David L. & Carter, Jeremy G. (2009). "Intelligence-Led Policing: Conceptual and Functional Considerations for Public Policy", Criminal Justice Policy Review, 20, pp.7-8

Cordner, G., & Biebel, E. P. (2005). Problem oriented policing in practice. Criminology & Public Policy, 4(2), pp.155-180

Gonzales, A. R,. Schofield, R. B., & Herraiz, D. S. (2005). Intelligence-Led Policing: New Intelligence Architecture, U.S. Department of Justice, p.10

Hale, C., Heaton, R., & Uglow, S. (2004). Uniform styles? Aspects of police centralization in England and Wales. Policing and Society, 14(4), pp.291-312.

Heaton, R. (2000). "The prospects for intelligence-led policing: Some historical and quantitative considerations", Policing and Society, vol. 9, pp.337-356.

Jerry Ratcliffe. (2003). Intelligence Led Policing (Trends and Issues in Crime and Criminal Justice, No. 248). Canberra: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pp.1-6

Jerry Ratcliffe. (2008). Intelligence-led Policing, Rortland, OR: Willan Publishing, p.89

McGarrell, E. f., Freilich, J. D., & Chermak, S. (2007), "Intelligence-Led Policing as a framework for responding to terrorism",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23(2), pp.142-158

Steven David Brown. (2007). "The meaning of criminal intellig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Management, Vol. 9 No. 4, pp.336-340.

Willmer, M. A. P. (1970). Crime and Information Theory.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p.53

3. 기 타

http://www.riscuk.com/UK_National_Intelligence_Model.asp

http://impel.eu/wp-content/uploads/2012/02/A-guide-to-the-National-Intelligence-Model.pdf

http://www.soca.gov.uk/about-soca/national-crime-agency

【Abstract】

Study on the Intelligence-Led Policing(ILP) for the sake of Crime Prevention

- Focused on the Discussion to Introduce to Korea-

Park, Han-Ho
Han, Sang-Am
Lee, Myung-Woo

The threat of crime became a global issue nowadays. Terrorism, organized crime, crime by nation can be mentioned as typical examples.

The crimes in modern society can't be identified to happen when, where and how being different from those traditional crimes(murder, robbery, sexual abuse, arson).

This was the result of changed security environment that needs to address wide range of crimes as being indicated sporadic characteristics of modern threat of crime such as terrorism threat targeting unidentified masses as well as the emergence of systemic phenomenon of organized crimes and crime committed by nation.

In this regard, the case of 9.11 occurred in 2001 can be deemed as an example that made a dramatic turn around to the security environment.

After the terrorism, it provided an opportunity to rethink not only USA but also to the institutions all over the world that deals with crime about gathering, management, utilization of crime intelligence.

As a result of which there appeared a change in police activities more effectively in gathering & managing crime information and ILP is the very activity that emerged from the USA/UK countries.

This aims police activities to minimize the threat of crime being the system reflecting a framework to manage more directly to control crime by gathering and processing information.

In view of the global change of security environment as a common phenomenon, the need to direct to ILP has increased in Korea in line with such security environmental change.

Accordingly, this study focused on the method of introduction of ILP and presentation of matters for discussion by reviewing ILP activities of the USA/UK countries.

Key words : Intelligence-led Policing, Community Policing, Police Paradigm, Problem Oriented Policing, Multi-agency cooperative policing